

‘신뢰받는 의회’ 만들기 최선

2018년 제8대 완주군의회가 개원하고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제8대 완주군의회는 전국 최초 재난지원금 2회 지급 결정, 비대면 임시회 등 코로나19위기 극복에 앞장섰다.

특히 완주군의회는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진정한 자치의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 현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군민의 대변자로 신뢰와 책임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회 본회의장

▲군민의 뜻을 존중하고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과 함께한 ‘소통의회’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완주군의회는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각종 여론을 폭넓게 수렴했다.

완주군의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완주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장 등을 비롯해 총 32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원들의 의지는 의원들 스스로 현장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만들었다.



지역업체 활성화 간담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관련 민원을 비롯한 환경 관련 민원들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청정원주의 모습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비염면 시료채취

또한 올해 초부터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관내 건설업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했다.

한편,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설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 및 관내 업체 물품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 중에 있다.



헬기노선 변경 철회 집회



사회복지시설 방문·격려

▲집행기관과 상호 협력으로 민주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상생의회’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완주군 집행부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수소산업과 관련된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한편, 관련 5분발언과 결의문 건의문 등을 채택해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완주군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과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국도비 확보 협력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중앙부처와 전북도, 완주군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행정에 대한 감시·견제를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

완주군의회는 제8대 개원이후 제23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80회 정례회까지 의원발의 168건, 5분발언 54건, 군정질의 11건 등 총 565안건을 처리 했다.

특히, 의원발의 안전과 건의문 결의문 등은 이미 전대의 수준을 훨씬 넘어 갔다.

수치상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발인과 군정질의 ▲조경수 장마 피해 등과 관련한 농업지원 방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소산업단지 조성 ▲전주항공대대 헬기노선 백지화 ▲코로나 19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등 군민복지와 취약계층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완주군의회가 정책으로서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예가 될 것이다.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복의회’

사회적 약자를 먼저 살피고 지역발전의 이끄는 군의회가 되어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완주군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과 적십자 나눔활동의 관심과 확대를 위해 대한적십자 전북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하는 한편, 사회복지 시설과 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한편 완주군의 인구 감소요인을 저축성과 노령화 뿐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에 있다고 생각한 의회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

▶ 김재천 의장의 포부

“초심 잃지 않고 군민 위한 신념으로”

김재천 의장은 “우리 군민들이 보다 행복해지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들의 생각을 정책으로 이끌어 내 비판과 견제를 넘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군민을 위한 군민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관내를 두루 살피며 동분서주하여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참된 일꾼이 되고자 한다”고 남은 임기의 포부를 밝혔다.

초지일관(初心一貫)이란 말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을 위한다는 그 신념으로 제8대 의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주민 의견 수렴 위한 현장방문
다양한 여론 폭넓게 수렴

수소특화국가산단 조성 위해
모든 역량 동원 집행부에 힘 보태

현안 해결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수시로 소통

개원 후 총 565건 안건 처리
재난지원금 등 내용적 측면서
복지·취약계층 등이 주 이뤄

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청년들의 귀농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고소득 특작물을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언제든 청년들이 새로운 작물에 도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군민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정책 등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건의하는 등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 모두가 행복하고, 행복한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완주군의회가 앞장서고 있다.

/원주=이중복기자



동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도시, 고창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